

## 꿈이라도 꺾보지 뭐~

TBS

김선환 기자



국회 운동장에 걸린 '제24회 국회사무총장배 축구대회' 현수막

나는 스포츠 광이다. 기억에 없는 아주 어린 적을 제외하고는 줄곧 그랬다. TV와 라디오 중계를 보며 자랐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디선가 스포츠 중계를 하는게 보이거나 들리면 뉘 놓고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국제대회를 하는 날은 심야에도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고교생 때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다.

국내외 유명 스타들이 뛰는 경기를 실시간 생중계로, '다시 보기'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지금 산다는 것은 내겐 큰 복이

다. 가상현실이나 나올 것 같은 스포츠 영웅들이 울고 웃는 장면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한다.

캐스터와 해설가들의 중계를 보고 듣는 것도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전파를 타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팬들의 열띤 함성소리, 이를 전하는 캐스터들의 숨가쁜 중계 역시 그 자체로 큰 재미가 있다.

어릴 적 우리를 브라운관 앞에 모이도록 한 권투 중계진들의 박진감 넘치는 싸우팅도 빼놓을 수 없다. 종목별로 방송사 해설진이 거의 정해져 있을 정도로 선수

## 국회출입기자축구단



축구대회(7월15일)가 끝난 뒤 한자리에 모인 국회출입기자축구단

들만큼이나 시·청취자들과 친숙했던 그들의 열띤 중계에 흥분했던 기억이 많다.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야구와 축구 등 캐스터들의 말과 행동을 솔하게 따라 했고 그 속에서 꿈을 키웠다. 언감생심이지만, 나도 가끔은 캐스터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도 있었다.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으니, 얼마간 꿈을 이룬 거나 다름이 없다.

운동은 역시 보는 것을 넘어 뛰어야 제맛이다.

학창 시절 나 또한 운동장에서 살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휴일은 말할 것

도 없고, 평일 오후 학교를 파한 뒤에는 마을 친구들을 불러내 밤늦게까지 놀기 일쑤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다. 당시 전주에서 전국 소년체전이 열렸는데, 주변에서 잘한다는 얘기에 취해 학교 축구부에 열정거렸다. 아버지께서 알까 무서워 겁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은 내 가슴 한켠에 추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같이 했던 친구는 다른 학교로 스카우트 되어 선수로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 그 친구 얼굴과 이름까지 선명히 기억나는 걸 보면 나도 애착이 많았던 게 분명하다.

공을 가지고 노는 거니,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한 뒤로는 이마저도 담을 쌓고 지냈다. 운동장을 뛰는 것도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지독히 게을렀던 탓이다.

TBS 기자협회장이던 2014년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에 출전했었다. 우리 회사가 기자협회에 가입하고 난 뒤 두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꼭 이기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다. 하지만 경기중 왼쪽 종아리 인대를 다쳐 버렸다. 당연한 결과였다. 내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몸을 풀지도 않고 뛰었으니, 얘기 다 한 걸꺼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경기에 나가기 전 스트레칭 등을 열심히 하던데 말이다.

그 뒤로는 아예 운동장에서 뛰는 게 두렵기까지 했었다. 자연스럽게 체력은 더 저하되었다.

다시 축구를 시작하게 된 건 2년 전

회사 선배의 추천으로 동호회에 가입하고 부터다. 이제는 주말 아침 운동장 나갈 생각에 들뜬다.

물론 나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과 운동해야 하니, 속도와 기술에서 상대가 안 되지만, 뛰면서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 그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직장생활에서 얻기 힘든 인간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다. 왜 이제야 알게 됐나 싶어질 정도다.

취재하느라, 기사 쓰느라 바쁜데,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냐고? 서설이 길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다.

2022년 말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나를 포함해 직원들 전체가 입은 상처는 크고 깊었다. 아무리 소리쳐 외쳐봐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정치적 메아리뿐이었다. TBS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에 마음



6월13일 경비단과의 1차전 장면. 나는 왼쪽 수비수를 봤다.



7월4일 경비단과의 2차전 장면. 비가 역수로 내려 운동장이 흠뻑 젖어있다.

이 움츠러졌고,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갔다. 무력감은 그 자리를 빼곡히 채워갔다.

그러던 차에 알게 된 게 국회 기자축구단이다. 올해 초부터 다시 출입하고 있는 국회 기자실 벽에 기자축구단 모집 광고가 붙어 있었다. 사실 TBS에 입사하기 전이었던 2009년 광주 지역 언론사 국회 주재기자 때 축구단 활동을 잠깐 했었다. 그 뒤 회사를 옮기고는 관심 밖이었는데,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직감적으로 가입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동호회로 댄 지 1년 반이 지나 체력에 약간 자신감이 올랐고, 주말 한 번의 운동량으로 체력관리를 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왔다. 잘 됐다 싶어 바로 예전에 알고 있던 운영진에게 연락했다. 그 친구(충무 김현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

었고, 흔쾌히 수락해주었다. 또 하나 축구단 가입을 생각한 것은 어려운 회사 상황을 타사 기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나름의 판단 때문이기도 했다.

약 15년 만에 다시 참여한 국회 축구 리그는 여러 언론사 기자단과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경비단, 사무처 등 4팀이 서로 2게임씩 팀당 각각 8게임씩을 치른 뒤 종합성적으로 우승을 겨루는 방식이다.

2023년 6월13일 열린 기자단의 1회전 상대는 경비단이었다. 50~60대도 많은 기자단과 달리 경비단은 딱 봐도 20~40대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었다. 당연히 조직력과 기동력이 우리보다 월등했다. 정기적으로 훈련해 온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기자단은 모래알 조직력에 체력들도 그다지 좋지 않다. 결과가 뻔했을까?

아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기자사회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법을 안다. 결국 지긴 했어도, 호락호락하게 물러섰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다음 경기에서는 해볼 만했다.(후기: 7월4일 열린 경비단과의 2차전 경기는 역수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4대 2로 졌지만, 선전했다^^)

저녁 식사에 참여해 첫 뒤풀이를 했다. 쑥스러운 첫 만남이었지만, 한배를 탄 동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힘들고 외로웠다”는 한 선배의 말에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이 밀려왔다. 곳곳이 그 자리를 버텨온 타사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향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내 미안한 마음을 대신할 생각이다.

꿈이 있다. TBS 보도본부 내에 스포츠부를 만드는 꿈이다.

TBS 전체가 프로그램 제작예산도 없어 마른 형겔을 쥐어짜고 있는 형편에, 스포츠부를 만들겠다는, 지금으로서는 우물에서 송냥 내나라는 식일꺼다.

한편으로는 팬으로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과 기사쓰는 일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솔직히 예전에 올림픽 취재 쿼터 신청을 하면서 스포츠 취재 협조를 받아내는 게 다른 분야보



마포구 상암동 미디어재단 TBS 앞에 서 있는 필자

다 더 어렵다는 것을 체감한 적도 있다. 다른 언론사처럼 스포츠부 기자로 인정받으려면 오랜 활동기간도 필요할 테고, 스포츠가 팬들에게 더 사랑받도록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기사를 써야 할 텐데 그럴 자신도 많지 않다. 아무런 현장 경험이 없어서 더 그렇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TBS를 꼭 정상화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도본부에 스포츠부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후배들도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TBS가 여러모로 힘겨운 시절이지만, 기회가 온다면 잘하고 싶다. ♡

TBS 김선환 기자